

| 이달의 주제 |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월간

북한 개발소식

2019 April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01

권두칼럼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09

칼럼 1 · 문성묵
북한 핵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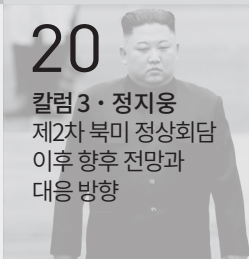


14

칼럼 2 · 정지웅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의와 한반도 정세
정망

20

칼럼 3 · 정지웅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27

탈북민 수기 ·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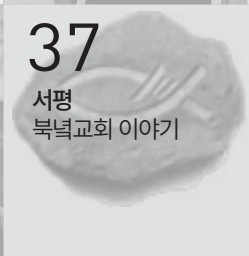
32

북한소식



37

서평
북녘교회 이야기



40

기도제목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개최 자체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북핵 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회담이었기에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하노이에 집중되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기대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기대하는 편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만큼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었다. 이 중 북한의 핵포기가 진정성이 있지만 충분한 보상 없이는 어렵다고 보는 이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응 조치, 즉 일부 제재 해제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이들은 북한이 이미 공개된 일부 시설의 폐기로 자신들의 목을 옥죄는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한다고 보고, 완전한 핵 폐기 이전에는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나 핵 군축 수준의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에 만족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심각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 만큼 임기 내 성과 도출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북한과 합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즉 북핵 폐기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해줌으로써 북한이 결국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노이에서의 회담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넘어서는 결렬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미국측에서는 이번 회담 결렬의 이유가

북미간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의 차이라는 말과 함께 북한이 요구한 제재 해제를 줄 수 없었다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별도의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북한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북한 측도 이래적으로 결렬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영변 핵실험장 폐쇄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민생에 영향을 주는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이미 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이어서 영변 핵시설까지 폐기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미국 측이 이에 대한 대가 없이 갑작스럽게 추가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며 당황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 속에서도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사를 삼가면서 앞으로도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에는 어떤 의도와 계산이 숨어있는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북미대화와 북핵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의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기도제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과 미국의 서로 다른 셈법

현재 진행되는 북핵 대화에서 북한과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다른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완전한 핵 폐기와 보상을 교환하는 일괄타결 방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각 단계별로 보상을 제공하는 단계별 비핵화 방식이 그것이다. 그간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계속해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미국이 말하는 일괄타결방식은 북한이 모든 핵을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폐기한다면 그에 따른 안전 보장과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식인데, 북한 입장에서 대가 없이 먼저 핵을 포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편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점진적인 핵



<제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러나 두 정상의 악수와는 달리 회담은 결과적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백악관 트위터)>

폐기 방식으로 현실적이고 타협점을 찾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알려진 핵 자산 일부를 정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대가를 취한 뒤 중도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중단해 버릴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간의 비핵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은 핵을 여전히 보유하는 상황이 되기에 단계별 비핵화 방안 역시 많은 논란이 있다.

제2차 북미회담 전까지는 남한 측의 중재와 미국의 입장 완화로 북한의 단계적 핵 폐기 안이 받아들여지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핵화를 위해 진행중인 북미 대화에는 두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었다. 첫째로는 북한이 중도에 비핵화 과정을 중단하고 핵 보유국으로 나서고자 할 가능성에 대한, 즉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둘째로는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의 기준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은 초기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CVID)를 이야기했지만 점차 그러한 입장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통해서 이런 기존의

의문과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명확해진 듯하다. 먼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북한이 숨겨온 핵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미국 측이 이 시설의 폐기를 거론했을 때 이를 받아드리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아산연구소 최강, 신범철 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나 남한이 말하는 비핵화와는 다른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이 유지된 것으로 보았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불법적인 핵 개발국이 아닌 핵 보유국으로 보는 개념이다.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서는 북미 대화가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라기 보다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사실상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지난 18년 7월,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강선(Kangson)' 단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설은 영변이 아닌 평양 인근의 천리마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동아일보)>

1 최 강, 신범철,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이슈 브리프 2019-10, 아산정책연구원 (2019.03.04). pp 2-3.

핵군축 협상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미국과 남한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개념이다.

미국의 북핵에 대한 태도도 좀 더 확실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적 성과를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회담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얻고자 핵 폐기 수준이나 방식에 대해서 북한에 상당히 양보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다른 비밀 핵시설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핵 폐기 원칙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간 잠잠했던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 이후 전면에서 나서 핵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그 외 대량살상무기들의 폐기까지 거론하는 등 오히려 전보다 더 강경해진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회담 결렬과 양국의 입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기존의 북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먼저 북한은 자신들이 숨겨온 핵시설의 존재가 드러난 만큼 기존의 노선을 유지할지 아니면 미국 측의 제안을 받아 드릴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북한의 비핵화 관련 발언은 모호한 점이 많았다. 비핵화를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 개념과 수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숨겨온 추가 핵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미국과 남한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 해졌고, 북한의 주장해온 단계적 비핵화 방안도 설득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미국의 요구를 따라 전면적인 핵폐기에 나설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일괄 타결에 따른 선 폐기 후 보상안은 받아드리기 어려운 제안이다. 거기에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반응을 볼 때 자신들이 미국에 충분히 의미있는 제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가는 것에 피로감과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제재 해제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숙원이었던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이대로 날려버릴 수도 없다. 따라서 북한은 일단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게 할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북한의 반응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재개하겠다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볼모로 일종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3월 15일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외신 기자와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미국과의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실제로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위협의 수준에서 상황을 지켜 보며 후속 대응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결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 국내 전문가들이나 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결과가 바람직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² 북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미 대화가 줄속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하며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의회를 비롯한 미 국내 여론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북미대화의 방향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북한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앞으로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더 탄탄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을 억제하고 미군 유해 송환 등 가시적인 업적을 쌓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북한과의 비합리적인 협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국내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여유롭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결과 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해할 필요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여유있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다시금 핵과 미사일 개발 및 군사 도발을 선택하게 된다면 트럼프 로서도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만큼 회담 결렬이 대화 중단과 회귀로 돌아가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기 보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과 기도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눈에 드러난 결과에 비해 북한과 미국의 태도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김 위원장과 우호적인

2 권보람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정책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9.03.08)

제 2 차 조 미 수 뇌 상 봉 제 2 일 회 담 진 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 합 중 국 대 통 령 도 날 드 제 이 . 트 럼 프 와
또 다 시 상 봉 하 시 고 회 담 하 시 었 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위원장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2월 28일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3월 1일 노동신문 1-2면에는 결렬 내용 언급 없이 회담 사진과 함께 북미간의 협력과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북한 역시 전과 같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비방하지 않고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회담이 결렬된 만큼 단시일 내에 협상이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 아무래도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데 상당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북한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일단 제재로 인한 국내적 어려움이 상당하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섰는데도 제재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종구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 외화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원자재 부족뿐 아니라 유동성 위기로 경제침체 및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심각한 차질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번 협상 실패가 국내적으로 시장활동 위축과 경제발전 비전에 대한 불신

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³ 이러한 예상되는 국내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과 여론 악화에 대해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한 당국이 최대한 책임을 미국에 계속 돌리면서 ‘최고지도자가 많이 노력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당장 완화되지 않으니 내부 일심단결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특히 광물 수출 등 직접적인 제재의 이해당사자인 엘리트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이라고 보았다.⁴ 그렇지만 이러한 선전은 결국 일시적인 민심 달래기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걷어내고 경제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3 이종구,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과와 북한 입장의 분석”, 동북아 정세안보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9.03.08). p 7.

4 BBC 코리아,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함구하다 결국 사실 밝힌 북한”, (2019. 03. 11).

미국의 국내 정치 환경도 북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현재 민주당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역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미 대화를 탐탁지 않아하고 있다. 즉 현재 북한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일 뿐, 여당인 공화당 차원에서도 지켜내야 할 이슈가 아니다.⁵ 현 북미 대화가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가능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생각해 볼 때, 북한 입장에서는 약 1년 반 정도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미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북한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임기 내에 북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결국 머지 않은 시기에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 결렬로 남한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해졌다. 북한과 미국 사이를 중재하면서 이번 회담이 잘 타결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 한반도 체제 준비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여러모로 난처한 전개이다. 특히 북한이 숨겨놓은 핵시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북재제 완화 등을 이야기해온 문재인

정부에게 상당한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과 미국은 아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대화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의 진전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재자로서 남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회담 결렬로 북한과 미국의 입장과 그 간극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 만큼, 이러한 입장 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놓고 중재자로서 남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의 역할을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한 정부는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은 북미 대화의 진전을 위해 애쓰는 와중에 자기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북핵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최초에는 미국과 같이 일괄타결 방식을 지지했으나 북미간의 대화 중재 과정에서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방안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보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외교적 움직임을 취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순수하게만 받아드릴 수

5 권보람. pp 3-5.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전과 같은 외교적 행보는 국내외적으로 불신을 살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확고히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록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더욱 바른 방향으로, 해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돋보이기는 했지만 어떤 전문가나 정책결정자도 예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여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벤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미간의 협상을 비롯하여 북핵 문제,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개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겸손하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가올 변화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컴컴하고 미로 같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분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이견을 좁히고 제대로 된 비핵화로의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를 개기로 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전반에 정의와 평화가 증진되는 바람직한 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북한 핵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문 성 목(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지난 해 남북 및 미·북간 대화와 협상이 개시되면서 한반도 위협의 근본 원인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었다.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남북정상 간 세 차례 정상회담이 열렸고, 미·북간 두 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이 합의되었다. 미·북간에는 6.12 싱가포르 성명이 합의되었다. 일련의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 과연 북핵문제는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아니요'다.

지난 해 일련의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론적인 합의는 있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비핵화가 아니다. 금년 들어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이 결렬되었다.

하노이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고 평양 산음동 미사일 생산기지의 활발한 움직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공히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는 있지만, 과연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북핵문제가 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무엇이 문제였나?

작년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국과 북한 정상간 첫 회담에서 다음의 네 가지 항에 합의했다. 즉, ①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③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④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이다. 이후 후속 회담을 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8개월여가 지나도록 협상은 공전했다. 하지만,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대화가 이어졌고, 양 정상 간에는 친서를 통한 소통도 이어졌다. 드디어 정상간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다. 장소는 베트남의 하노이였다. 베트남은 과거 분단되었었고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나라이다. 1970년대 초반 공산 월맹이 자유월남을 무력으로 통일한 후,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른바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고 1990년대초 미국과 수교하면서 오늘날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 처럼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발전을 하는 지금의 모습은 북한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의 장소가 베트남으로 결정된 상징성이 있다.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양측 간에는 실무차원의 협상이 긴밀하게 이어 졌다.

이번 회담은 작년과는 달리 이틀간의 일정으로 정해졌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것이 이른 바 빅딜이냐 아니면 스몰딜이냐 평가는 좀 엇갈렸지만, 적어도 6.12성명보다는 진일보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본 것은 사실이다. 그 근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개최를 결정한 것은 물러 특검이나 섣다운 조치 등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차기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반드시 무엇인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절박감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 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극심한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이 지금 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담을 통해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 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담의 결과는 우리 기대와 달리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서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즉, 북한은 영변핵시설 만을 폐기하겠다고 했고, 미국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화는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3월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북한도 회담 종료 당일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의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영변 핵시설을 전문가들 입회하에 모두 폐기하는 대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1개중 2016년 이후 채택된 제재만을 해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5개의 제재 가운데서도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연관된 내용만을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최선희 부상은 별도의 기자문답에서 김정은이 미국식 계산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으며, 향후 회담에 대한 의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언급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향한 압박성 메시지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이라도 하려는 듯, 북한은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의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지가 없음이 입증되는 계기

작년에 북한이 협상으로 나오고 우리 특사를 통해 조건부이지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때만해도 반신반의였다. 많은 국민들은 작년 4.27 선언 이후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남북정상의 언급을 믿었다. 문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상응조치로서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유엔에서, 유럽 순방 중에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하노이회담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을 완전히 폐기할 의사는 없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영변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 모두를 폐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북한 전체 핵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5건의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은 핵의 일부를 내어주고 대북제재 해제를 받은 뒤, 남은 핵 능력은 계속 보유하여 핵보유국의 지위와 역량은 유지하려는 속셈을 보여준 셈이다. 이러한 북한의 속내를 확인한 미국이 그들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는 오히려 박수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 바 있다. 지난 해 4월20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핵 무력의 완성으로 병진노선은 완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신 전략노선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보유한 핵은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물질과 기술, 장비를 이전하지 않고, 핵 없는 세계를 만들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장을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를 한 후 이는 국제사회의 핵군축 조치의 일환임을 밝혔다. 미국이 핵포기를 요구하자 이는 강도적인 요구라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북한은 6.12 성명에서 합의한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금년 1월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북제재를 이어갈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도 있다.

미국의 목표는 CVID임을 재확인

반면, 미국은 지난 해 6월 미국의 최소한의 목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였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후 이러한 표현이 사라졌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수용하고, 작은 합의(스몰 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미사일과 화생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해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경제강국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는 이른바 큰 합의(빅 딜)를 시도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여 결렬되었다는 사실이 불턴 보좌관의 전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존 불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요구하는 수준은 바로 CVID이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가 제로(영)이 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공인된 기관의 사찰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WMD가 소멸될 때 비로소 가능하며 그래야 평화통일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하노이에서 합의가 불발되었지만, 더 나은 합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되기도 한다.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의 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수많은 합의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개발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도 솜방망이였던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경제의 생명줄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 북한이 이번에 해제를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북한에게 뼈아픈 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과 미국 공히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재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남북경협으로 물꼬를 터 보려던 정부의 계산은 빗나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국과 공동의 입장으로 북한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비핵화 없이는 남북경협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도 어렵다는 명확한 인식에 바탕을 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김정은 정권이 현실을 직시하고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둘째, 우리 정부도 분명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견지하면서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이에 빈틈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자. 셋째,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에 한치의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자. 

2차 북미정상회담 의의와 한반도 정세 전망

정 지 웅(코리아통합연구원장,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넘어서는 비핵화 조치(영변+ α)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 또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수준을 넘어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 완화를 요구해 결국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No Deal이 Bad Deal보다 낫다”는 협상원칙에 따라 ‘노딜’을 선택했다. 과거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를 하겠다고도 말했지만 제한적 대북 예방타격을 뜻하는 '코피(Bloody Nose) 전략'을 공공연하게 거론하였던 트럼프의 대북정책 옵션은 아주 다양했다.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

하기도 했다. 과거 대통령과 다른, 그의 개인적 성격, 비즈니스맨 출신이라는 것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북미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일리가 있었다. 또한 이번 회담은 그가 냉정한 비즈니스맨 출신이라는 것을 다시 환기시켜 준다고 하겠다.

북미정상회담 종결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합의 결렬의 원인과 관련해 “제재가 쟁점이었다.”며 “북한이 제재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

시설이 있다.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회담 결렬 직후,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α의 비핵화 조치’에까지 합의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3월 1일 새벽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밝힌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추후 회담장에 북측의 카운터 파트너 없이 참석하였던 볼튼이 이후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의 거대한 경제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대량살상 무기(WMD)의 완전한 폐기까지 미국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까지 미국이 나올지 북한은 예상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가방에는 ‘빅딜’과 ‘스몰딜’, ‘노딜’까지 모두 카드에 들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미국조야에서 회담 전부터 우려해 왔던,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단계적 해법인 ‘스몰 딜’ 카드가 성사되어



〈3월 1일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모습〉

귀국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것임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스몰 딜’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리용호 외무상은 새벽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입장에서는 영변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우선 급한 부문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수준으로 이번 회담의 성과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심이 되었던 앞선 실무회담 수준에서 논의되었을 것이다. 즉 북이 수용할 수 있는 제재완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부분적 동시이행을 주고받기하는 수준의 단계별 합의를 모색했을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미국입장에서 보면 일괄타결인 ‘빅딜’이 아닌 단계별 해법인 ‘스몰 딜’인데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트럼프가 이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가족의 세금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에서 등을 돌린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하원 청문회가 정상회담 시간에 열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절실했을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27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마이클 코언은 '러시아 스캔들'로 일컬어지는 2016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공모 혐의 관련하여 수사협조를 대가로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전제로 특검 수사에 조력해왔다.>

트럼프는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일괄타결 즉 ‘빅딜’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은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의기양양하게 귀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이를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폐기 이외의 추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까지, 탄도미사일 폐기까지, 그리고 생화학무기에 대한 폐기까지 합의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도 북한이 ‘빅딜’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보았고, 이 경우 미국팀은 판을 접는다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경파로 알려진 볼튼 때문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그는 협상전략으로 적절한 악역을 맡았을 뿐이다.

협상을 결렬시킴으로 트럼프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비난도 피했다. 워싱턴의 컨센서스는 “나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로 모이고 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올리비아 에노스는 BBC에 ‘배드 딜(나쁜 합의)’보다는 ‘노 딜’이 낫다며, “지킬 수 없는 조건들이 담긴 합의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같은 평가에는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을 손상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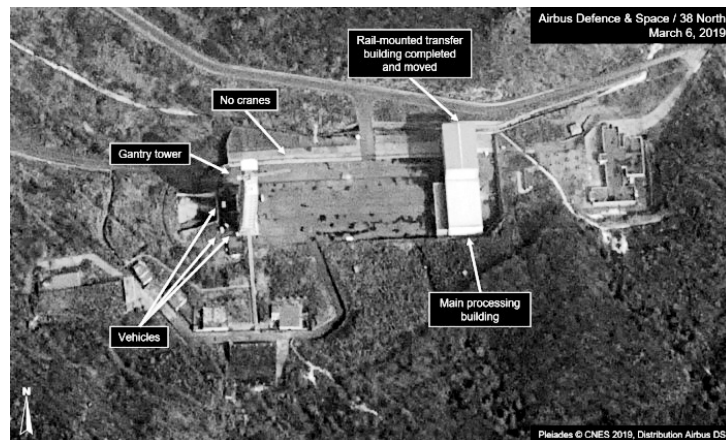
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¹

미국이 제재 완화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것은 유엔안보리에 의해 채택되었던 대북 제재 중 북한이 요구한 일부 해제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더라도 대북 제재에 구멍이 생겨 북한에 대한 압박이 현저하게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비핵화 협상 동력이 약화되어 모처럼 찾아온 북의 비핵화 기회를 놓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 조야의 컨센서스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보수적 시각을 가진 분들의 입장이기도 하다.

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다. 김 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회담 결렬의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대한 신랄한 비난은 자제하는

매우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들이 협상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이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의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은 많은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NYT는 “이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외교적 치적으로 주장해온 미사일 실험의 유예를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있어 불길한 징후(ominous sign)”라고 표현했다. WP는 위성 사진 상 복구 작업 시작 시기가 회담 결렬 직전 또는 바로 그 직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언급한 맥락에서 본다면 발사장 복구 조치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위성사진 (38 North)>

1 김연호, “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의 공통성,” 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rchive&id=5700 검색일 2019년 3월 12일.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스티븐 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WP에 “동창리 발사장 폐기는 북한이 협상 절차를 시작하면서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독자적 조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CNN방송은 “위성사진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긴 하지만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보완할 충분한 정보 없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NN에 “북한이 우리(미국)가 알기를 원하는 무언가를 한다면 그에 관해 이야기할 텐데, 그들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아직 판단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비확산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데이브 슈머러는 CNN에 “이번 활동이 워싱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한수’일 수 있다”면서 “이 시험장은 매우 ‘투명’하다”며 북한이 미국의 ‘인지’를 염두에 두고 던진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했다. 더불어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티븐 센터 수석연구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시설 복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실험을 위한 준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회담 결렬 이후 대화 재개 입장을 밝힌 트럼프

행정부는 선(先)확인-후(後)조치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이다.²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으로 북한의 비핵화 회의론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자 북한 매체들은 2019년 3월 12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밝히고 나섰다.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북미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에서도 '결렬'이라는 표현 대신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하며 회담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다른 선전매체도 같은 내용의 글과 양 정상의 서명이 들어간 싱가포르 합의서 사진을 실었다. 회담 결렬 이후 내부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동창리 등과 관련해 커지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협상 지속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³ 앞으로 북미 간에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대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서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또한 남·북·미 실무협의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신현주, “北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해석 분분...북한의 의도는?” 서울경제, 2019.03.07.

3 이효용, “북한 '완전한 비핵화' 확고. 북미 접점 찾을까?” KBS 뉴스, 2019.03.12.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원하는 것이 뚜렷해졌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더라도 기타 지역의 핵시설이 여전히 존재한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여야가 이에 대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핵시설과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애써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그리고 핵이 아닌 생화학무기까지, 정말로 폐기하려고 마음을 먹으려면 미국의 완전한 체제보장과 미국과의 완전한 신뢰회복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영변 + α 를 두고 북미간 치열한 기싸움과 협상시의 난항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조급함을 내어서는 안 된다.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를 일괄적으로 약속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북미간에 접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파국으로 치달기를 희망하는 자들의 대열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 불뚝은 당연히 우리 민족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한반도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담대함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오 일 환(기독교 통일학회 명예회장)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사전 분위기가 좋아 두 정상 간에 일정 수준의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예상과는 전혀 달리 28일 마지막 회담 과정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이 상황에 대해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과 언론매체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문의 상호조율을 위한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이 있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소 합의 수준의 합의문 초안이 마련돼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양국 정상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하는 공동기자 회견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일부 매체는 북한은 영변 핵물질 생산 중단, 미군 유해 송환 등을, 미국은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경협 재개에 필요한 일부 제재 완화 등을 합의문

초안에 담았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최종단계에서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전 세계 언론매체들에게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애써 “나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다. 회담은 외교적으로 끝났다”며, “앞으로 계속 해결을 시도하겠다. 회담 재개는 빠를 수도 있고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 발언은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계산된 말로서, 비록 2차 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어도 회담 재개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언론매체들이 협상 결렬 원인으로 제시한 내용은 대체로 의제 부분에서의 양국의 의견 차이와 미국의 국내 사정에 따른 돌발변수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최종 회담 과정에서 김정은이 미국 측의 제안을 거부하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플러스알파’는 내놓지 않으면서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회담 후 보름이 지난 3월 14일 뉴욕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15개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북한은 하노이회담에서 민생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제재를 전부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볼 때는 사실상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회담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회담 당시 북한 측은 북한의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영변 핵시설의 중요 성과 비중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핵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영변 핵시설을 명백하게, 투명하게 폐기하겠다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6년부터 취해진 유엔 안보리 결의들 가운데 민생 및 민수와 관련된 제재완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나중에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우리는 전문가들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데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의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 민생 관련 부문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발언에는

미국이 제안한 ‘영변 플러스알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미국 측은 회담에서 영변 이외의 규모가 큰 핵시설, 탄도미사일, 핵탄두 등의 목록 작성과 신고 문제 등을 북한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미국 측이 평남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실에 놀랐다고 언급했다. 결국, 미국 측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위한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원했지만, 북한 측은 체제 연명을 염두에 둔 살라미 전술을 통해 비핵화 과정의 각 개별 사안마다 미국으로부터 상응한 대가를 얻으려 한 것이 결국 회담의 파국을 가져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국내 사정에 따른 돌발변수가 회담 결렬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하노이회담이 진행되던 시각에 워싱턴에서는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 트럼프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증인으로 불러 ‘트럼프 청문회’를 열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당시 미국 언론매체들의 관심과 국민의 이목은 하노이 회담보다도 오히려 이 청문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같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트럼프의 마음이 워싱턴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트럼프는 회담 결렬 이후 기자회견에서 하노이회담 일정에 맞춰 코헨 변호사를 하원 청문회에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사실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트럼프로서는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반전시킬 카드로 하노이회담에서 빅딜을 이뤄내야

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노이회담의 결과가 미국의 의지와 달리 ‘빅딜’보다도 ‘스몰딜’로 끝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것을 다분히 우려했을 수 있다. 하노이회담이 개최되기 전부터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정계에서는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에만 연연한 나머지 북한에 유리한 합의를 해 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 외교안보 라인은 일제히 대북제재 유지 등 압박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주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모든 핵·미사일은 물론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했다. 만약 북한이 이 방식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추가제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회담 1주일 후인 3월 6일 트럼프는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보고 받았는데, 그는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은 북한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지만, 다음날 7일

에는 “조금 실망했다(a little disappointed)”라며 단정적으로 실망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북한의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약 1년 이내에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북·미 회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조속히 경제적 성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 김정은에게는 압박일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북한은 하노이회담 2주 후인 15일에 미국을 향하여 공식반응을 내놓았다.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재개 카드와 함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하고 나온 것이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날 평양에서 열린 긴급 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선희는 또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국무위원장은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시 이런 기차 여행을 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면서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최선희의 회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김정은의 결정이 곧 있을 것이라고 전제

사고는 이후 미국의 반응 여부에 따라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돌입하겠다는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였다. 이는 북한이 향후 미국의 반응을 살피면서金正은의 공식 성명 발표 시점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물론 최선희는 이날 회견에서 하노이 회담 실패의 원인을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에 돌리면서도 “두 최고 지도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한 계산된 의도로 보였다. 이처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으려 신경을 쓰면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외교라인에 대해 비난을 쏟아 부은 것은 트럼프와의 직접 대화 또는 담판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선희의 긴급 회견과 관련한 미국의 공식 반응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언급으로 즉각

나타났다. 폼페이오는 같은 날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대북 관련 질문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행정부의 바람”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대북 압박성 발언을 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 요구는 현 단계에서의 미국 정부의 입장과 요구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을 있을 수 없다”고 논평을 했다. 이는 북한이 계속해서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 원칙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 “우리의 임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세계에 한 약속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진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고, 김 위원장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전 세계를 대신해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계속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한 일괄타결식 ‘빅딜’ 성사를 위한 노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북미 간의 비핵화 과정은, ‘빅딜’이냐 아니냐, 그 타결방식에서부터 지리한 여정이 펼쳐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 해제라는 ‘빅딜’을 제안한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에 굴복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볼턴 보좌관은 10일 지렛대는 미국 쪽에 있다며 시간은 미국 편이란 입장을 보였는데, 미국이 쉽사리 ‘빅딜’ 방식을 내려놓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대미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무력시위는 북한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벼랑끝 전술’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협상과정이 길어지면서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미국의 안보 위기가 점증하고, 동북아 역내 안보의 균형이 크게 위협 받을 때, 북미 간의 협상이 깨지면서 한반도 상황이 2017년 하반기처럼 전운이 감도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지난 1년간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제조를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트럼프는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5개월째 유지해온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을 그동안 최대 외교 업적으로 강조해 왔다. 또한 하노이 정상회담 만찬 때는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실험을 중단해온金正은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 결렬 직후 일부 해체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매우 실망스럽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핵·미사일 실험 재개는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선을 긋고 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긴급 회견 직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실험 재개는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고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 지난 1년간 북미 비핵화 외교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미 간에는 긴장 국면이 재연될 것이고, 미국과 국제 사회가 강력한 추가 제재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안보환경을 극도로 냉각시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는 일대 안보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노이회담 이후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상황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비핵화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초기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하여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이며, 신뢰회복과 함께 평화체제로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 협상이 파국을 맞고, 긴장 국면이 조성될 때는 안보를 최우선시 하는

선택을 해야 마땅하다. 어느 나라든 간에 정책적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죽느냐 사느냐와 관련된 영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정책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하며 안보 위기를 조성할 경우에는, 한국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확실히 보장 받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핵 무장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핵을 보유한 나라와의 평화는 결국 핵 무장으로 대응할 때라야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년여에 걸쳐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해온 사실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가 진행되기도 전에 인도적 지원 외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부터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북한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임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등 우리 안보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뿐이다.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의 지지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하루 뒤인 3월 1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은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 즉, 3월 6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회동한 다음날 미 국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와 관련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압박 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오히려 제재들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당시 금강산을 관광중인 관광객들의 모습〉

미 국무부는, 14일에도 로버트 팔라디노 부 대변인을 통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처음 가진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포함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근 노력들을 공유했다”며 “양측은 동맹으로서 정기적으로 이런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무부 발표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미 워킹그룹 논의 내용이

한국이 요구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이 아닌 하노이회담 이후 미국 측이 강조해온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약,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에 의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엄연한 현실 속에서 남북 경협을 우선시한다면, 그만큼 제재 효과는 무력화될 것이고, 한미공조도 크게 금이 가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한국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취하는 방향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의 균열이 가속화되며 한미동맹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도 머쓱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18년 9월 24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포기하고 포괄적 합의 추구를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대상으로 하는 빅딜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 해제도 없다는 강경론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등 거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때마다 한반도 긴장국면은 반복될 것이다. 체제 보장용으로 핵을 개발한 상태에서 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장기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등 남북경협도 그만큼 지연될 공산이 클 수밖에 없다. 북핵을 머리에 인 채로 남북경협을 활성화는 것은 자칫 북한의 군사력만 강화시켜 주는 꼴이 될 것이고, 이는 또한 그동안 우리의 안보 역량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최선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조만간 있을 김정은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할 때다. 김정은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 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고린도후서 10:3-4)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신앙의 자유를 찾아 (1)

●
마리아

나는 탈북자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3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나도 그 숫자에 포함된 한 명의탈북자다. 탈북자가 남한에 올 때 많은 이들이 질문한다. 왜 이곳에 올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고... 경제적인 이유로 온 사람도 있고 북에도, 중국에도 머물 수 없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 온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믿고 섬길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한다. 북한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바로 그 자유가 소중했기 때문이다.

얼마전 수술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을 당연한 듯 생각하고 살다가 남한에 와서 그것이 치료 가능한 병이라는 사실이 되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요실금이 있었다. 신체 구조에 이상이 있었다. 서울에 와서야 나는 내가 생리적으로 쌍둥이로 태어날 걸 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에 일부

기관이 두 개씩 있었던 것이다. 워낙 드문 케이스라 남한 의사도 놀랐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진단이나 검사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남에게 선뜻 말하기 부끄러웠던 이 병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다. 남한에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수술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거나 지병이 있다고 하면 뭔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쉽다. 남한도 근래에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일이 많았다고 들었다. 나같이 말하기 부끄러운 병이라면 특히 더 그러할 것이다. 마치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것 마냥 손가락 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을 가진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변에서는 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엄마를 원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위에서



〈평양의 한 공장에 걸린 대형 선전 포스터 (16년도 촬영, VOA)〉

받기도 했다. 충분히 원망할 일 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어머니께 감사하다. 내 병을 치료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셨다. 자칫 그늘진 성향이 될 수도 있었을 나였지만 귀한 사랑으로 마음에 병 없이 성장했다. 하나님을 만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사랑이 많은 가족에서 태어나 귀하게 보살핌을 받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이렇게 무사히 남한에 와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태어날 때 본인이 선택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다. 북한 사람 대다수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이제 와서 보면 마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병과 같이 원망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예수님께 대해,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한 채 태어나자마자 살아있는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 수 밖에 없는 억압과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원통하다. 그렇게 권력을 잡고 신과 같이 떠받들어 지고자 하는 몇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수천만이 고통받고 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피 흘리셔야 할 만큼 이 땅의 악은 시커멓고 잔혹하여 사람들을 움아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과 그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은혜를 전달 하셨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서 부모님 생각부터 해서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 간다. 비록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많은 역경이 있었다. 비록 이름 없는 탈북자 1인에 불과하지만 부족한 나에게까지 닿았던 그 은혜를 알리고 싶었다. 그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강을 건너고 위험을 감수하며 찾았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중국 국경 근처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나는 2남 1녀 중 막내였다. 아버지는 6.25때 다리 한쪽을 잃은 영예 군인이셨다. 여기 말로 하면 상이 용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있어야 할 다리는 의족이 대신했다. 아버지는 영예군인 공장에 다니셨고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은 직장에 다니셨다.

원래 두 분은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셨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전쟁 이후 황해도에서 일

하시다가 영예 군인교육을 받기 위해 북쪽 지방으로 올라오셨고, 거기서 어머니를 소개 받으셨다고 한다. 비록 북한에서 영예군인 대우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좋은 결혼 상대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지 어머니는 아버지와 백년 가약을 맺으셨다.

우리 아버지는 과연 어머니가 장애를 무릅쓰고 좋아하실 만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품이 좋은 분이였다. 참 자상한 분이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전쟁이야기나 왜정 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러셨을까, 상대적으로 어머니는 상당히 엄한 분이셨다. 그 집에 막내딸로 태어난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공주같이 귀여움과 사랑을 받고 자랐다.

우리집은 한 동 네 세대 집이였다. 집 한 채에 4가구가 꼭 이어져 있는 집이다. 보통 말하는 하모니카 집이 10집 이상씩 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방이 여러 개 있는 좋은 집은 아니었다. 자그마한 단칸방에 부엌도 작고, 집에 잘 때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잤다. 남한에 와서 생각해보니 남한의 60년대 풍경 정도가 아닐까 싶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경제사정이 나쁘지 않았다. 국가에서 영예 군인은 대우해주기도 했다. 집에서는 오빠들과 내가 나이차이가 좀 나는 편이여서 귀염을 많이 받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



〈북한의 주택 (NK뉴스)〉

났었다. 그 증세로 인해 내 몸에서는 항상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 아직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나이였다 보니 제때 옷을 갈아입고 위생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이런 걸로 드러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내 주위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냄새 난다고 내 주위를 피하곤 했다. 만약 그때 내가 아이들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망했다면 내 어린 시절은 외롭고 어두움 뿐이었을 것이고 자칫 내 인생 전체가 그늘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공부도 잘 하지 못했다. 어느정도 커서야 내가 몸관리가 되니까 좀 괜찮은데 어릴 적에는 때는 자꾸 내 몸이 신경 쓰이고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나를 구김 없이 길러 주셨고, 원채 성격이 활발하고 개구쟁이였던 나는 왕따도 당하지 않고 아이들과 잘 어울렸다. 그렇게 아랑곳 않고 활발하게 어울리면서 아이들도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줬고 나는 곧 동네에서 제일 활발한 아이가 되었다. 동네에서 제일 크게 소리 지르고 신나게 노는 여자 아이가

바로 나왔다. 오죽하면 이웃들이 동네가 소란스러우니 마리아에게는 밥을 좀 적게 주라 할 정도였다. 엄마가 걱정하시면서 병이 있는데 밖으로 적당히 다니라고 하실 정도로 쾌활했다.

어머니는 내 병을 어떻게든 치료해 보고자 백방으로 다니셨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병원에 다닌 기억이 생생하다. 그렇지만 이런 희귀한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알더라도 치료할 수 없었을 그런 의료 환경이었다. 아무리 어머니가 열심으로 노력하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큰 어려움 없이 지내던 우리 집에 예기치 않은 슬픔이 찾아왔다. 큰 오빠가 군 복무 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초등학교생이었던 나는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울었다.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나이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슬펐다. 가슴에 아들을 묻으신 부모님께서도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다.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집안 경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공부에 딱히 관심이 없었던 나는 고등학생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이후에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다. 대신 청년돌격대에 입대했다. 청년돌격대는 청맹 산하 기관으로서 대학 가지 않고 사회 진출할 사람을 병역 대신 입대시켜 각종 공사에 투입하는 건설단이다. 돌격대는 삽을 들고 건설 현장을 다니지만. 군복처럼 제복을 입고 군대식으로 편제되어 활동했다. 나도 신입 훈련을 받고 중대, 소대 배치를 받았다.

우리 여단이 공사 배치 받은 곳은 평양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도 태어나서 평양 한번 못 가본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평양을 가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하지만 집안에서 가지 말라고 나를 뜯어 말리셨다. 외동딸인 나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셨고 몸의 약점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었다. 거기에 사회 풍조상 여자가 밖으로 돌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반대가 더 심했다. 그렇지만 나는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돌격대로 평양을 가게 되었다.

역시나 어른들 말처럼 집 떠나면 고생이다. 돌격대 일은 정말 힘들었다. 북한은 자동 없이 수동이라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담은 25킬로그램 포대 2개를 어깨에 지고 다니고 시멘트와 몰타르를 만지고 삽질하면서 고생했다. 일




<16년 5월 북한 속도전청년돌격대 창립 40돌을 맞아 열린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들의 결의대회>

하는 데는 여자라고 적게 시키거나 하는 법이 없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그래도 젊어서 한때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보내고자 했다. 중대 선동원이 보급하는 새로 나온 노래가 있으면 열심히 흥얼거렸다. 힘들었지만 거리가 생기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나름 보람이 있었다.

돌격대 생활의 낙은 누가 뭐래도 평양 구경 이었다.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을 하기에 평일에는 외출이 금지 되었지만 주말에는 평양 시내를 구경할 수 있었다. 내 눈에 평양은 휘둥그래질 정도로 멋있었다. 처음으로 야경이라는 것을 보았다. 가로등에 불이 다 들어오고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있는 평양은 북한 어디와도 비교 할 수 없는 곳이었다. 나름 큰 지방도시도 다녀보고 했지만 이런 곳은 없었다. 평양은 정말 최고였다.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평양의 화려함 가운데 울려 퍼졌던 여러 구호와 선전이 생각난다. 내가 평양에 있을 당시 사람들 사이에 수령 숭배가 대단했다. 나부터가 내 증조할아버지는 몰라도 김일성 수령의 가계는 다 외우고 다녔다.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국가 경제도 나쁘지 않았던 덕일까, 그 당시 공화국 사람 중에 소위 신실한 신심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 평양 거리를 걸으며 멋진 건축물들을 볼 때 왠지 모를 충성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았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의 평양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하루는 배고파서 채 익지 않은 과일을 하나 따 먹었는데 그것이 그만 탈이 나서 건강을 크게 해친 것이다. 그게 큰 병이 되어 제대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 제 2차 북미정상회담 최종 결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 이로써 작년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중대 기로에 섰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회견에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제재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해제를 해줄 수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외에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추가 핵시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 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다"면서 "김 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회견에서 "북한과 논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끝까지 가지 못했다"면서 북한과의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역시 회담 결렬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심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다"이라고 북한의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최 부상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협상안에) 내놓은 역사가 없다"고 강조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15개월 중지, 핵실험 중지 등 두 사안을 가지고도 응답 '프로세스'(제재 완화·해제 의미)가 진행돼야 할 유엔 제재 결의들이 영변 핵을 폐기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이므로 미국 측의 회담 계산법에 나도 혼돈이 오고, 어디에 기초한 회담 계산법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의 조미(북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시지 않는가"라며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속마음'을 추측해 언급하기도 했으며,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언급되었던 '새로운 길'을 직접 거론하며 대미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참고: 연합뉴스 및 언론보도 종합)

+ 북, 대미압박 본격화…대화 중단, 미사일·핵실험 카드 꺼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왼쪽)과 북측 관계자가 15일 평양에서 각국 외교관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침묵해온 북한이 미국의 '일괄타결·빅딜'론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중단과 미사일 및 핵실험 모라토리엄의 중단을 앞세워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3월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발언 요지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의 일괄타결·빅딜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추후 북미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부상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곧 결정할 것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성명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상의 입장 표명 이후에도 미국이 끝내 일괄타결론을 고수하면 더는 협상할 이유가 없고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명의로 협상 중단 입장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플랜을 공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성명을 언제 발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핵실험 모라토리엄의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현 상황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여유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데 유효한 카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유일하게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의도도 읽힌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최 부상은 "두 최고지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조선의 최고 영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마련하고 올바른 협상 자세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할 때 조미 쌍방은 비핵화를 향한 커다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이 깨질 수 있다며 위기감을 조성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단 최 부상이 미국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만큼 김 위원장의 최종결정은 미국의 향후 태도를 봐가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4월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연합뉴스 3월 15일)

✦ 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 포착



〈동창리 서해 로켓발사장 (AFP)〉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현지시간 3월 5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수직엔진시험대와 발사대의 미사일이 동구조물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닫혀 있던 연결 타워의 덮개도 열려 발사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싱크탱크 '38노스'도 같은 날 벽이 세워지고 새로운 지붕이 추가되는 등 발사장 일부 구조물이 다시 지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동창리 발사장의 시설 복구를 언급하며 관련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되는 미사일 엔진 실험이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그 때문에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내세워 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대응하는 것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최근 외부에 잇따라 포착된 북한 동창리와 산음동 미사일 시설 내 움직임은 기존에 진행해온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며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참고: BBC 및 언론보도 종합, 3월 6일)

✦ 38노스 "북 영변 및 풍계리 핵실험장은 움직임 포착 안돼"



〈영변 핵시설 단지 최근 모습(38North)〉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3월 15일(현지 시간) 상업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가동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이날 "최근 북한 영변 핵과학연구센터를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보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에서 가동 중이라는 분명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핵시설 옆 구룡강에서는 강을 따라 곳곳에서 준설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크레인과 굴삭기도 종종 목격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라늄농축공장에서 희색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가 2월 11일에서 22일 사이에 서쪽 끝부분에 도착했으며, 현재도 그 자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38노스는 최근의 상업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보고서… 북한의 제재 회피 및 안보리 결의 위반 내역 공개



실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소개하는 한편, 북한 선박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상태로 직접 석탄을 운반한 사례도 보고서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기업들이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북한산 석탄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을 비롯한 각종 무기와 관련된 움직임도 중점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3월 12일 공개된 대북제재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공해상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구체적인 환적 장면과 다른 나라 선박들의 제재 위반 사례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전문가패널은 미국 측이 포착한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을 공개했다.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총 148회의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북 유류 반입량이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선박 간 환적 빈도가 증가하고, 1차례 573만 달러어치, 즉 5만 7천 배럴이 환적된 증거를 입수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북한이 지난해 상한선을 넘겼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도 공개했다. 특히 베트남 인근 해역인 통킹 만에서 파나마와 토고, 코모로스 등의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이 북한 남포에서 실린 석탄을 공해상에서 옮겨

지켰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2015년 12월부터 가동 상태에 있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방사화학용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4월 27일과 5월 8일 사이 연기와 함께 석탄의 양이 변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이란과 시리아로의 무기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이자 한 때 북한의 해외 무기 거래의 통로로 알려졌던 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여전히 이들 나라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시리아의 경우 북한의 무기 전문가들이 시리아에 상주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이들의 실명과 여권 정보 등도 기재했다.

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전문가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참고: VOA, 3월 12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예정된 위기

- 북한은 제 2의 쿠바가 될 것인가?

저자: 안병진

출간일: 2018년 12월 17일

출판사: 모던아카이브

가격: 18,000원

제 2차 북미회담이 최종 결렬되었다. 회담 결렬은 어렵게 이루어진 북핵 대화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간의 외교라면 모르겠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북한과 종잡을 수 없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우연성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북미 북핵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화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지만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바로 남한에 사는 우리다. 북미간의 협상을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없는 처지이다. 남한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핵이 폐기 되야 할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도 챙겨야 하는데, 특별히 대북 제재 이슈 등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듯한 모양세여서 더욱 곤란한 처지이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을까? 이에 한 학자가 쿠바의 사례에 주목했다. 우리에게 쿠바는 19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사태로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마치 북한과 미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쿠바는 그 이후에도 미국과 지루하면서도 첨예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한편으로는 태평양 건너에 있는 북한과는 달리 쿠바는 미국의 턱 밑에서 혁명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더 큰 관심과 대응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국가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의 저서 “예정된 미래 -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는 62년 쿠바 미사일사태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쿠바 사이의 분쟁과 대화를 추적하면서 북한 사례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은 ‘배두인 전설’이다. 저자는 2002년 프리드먼의 논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그 논설에서 소개되는 베두인족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늙은 베두인족 족장이 칠면조를 사서 매일 먹이를 주며 정성껏 키웠다. 어느날 누군가가 이 칠면조를 훔쳐갔다. 족장은 아들을 불러 큰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아들은 그깟 칠면조 하나 가지고 호들갑 떠는 아버지를 무시했고, 결국은 낙타까지 도둑맞았다. 족장은 다시 칠면조를 찾아오라고 다그쳤지만, 아들은 칠면조에 집착하는 아버지의 말을 계속 무시했다. 결국 몇 주 후 족장 아들의 딸이 강간당했다. 그러자 족장은 아들에게 이렇게 한탄했다.

“모든 건 바로 칠면조 때문이다. 칠면조를 훔쳐갈 수 있다는 걸 놈들이 알았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이 이야기는 일련의 작은 문제에 있어서 적대하는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면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어설픈 타협 대신 강경한 대응이 문제 확산을 막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미국, 쿠바, 북한 모두 이러한 베두인 전설의 사고방식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쿠바나 북한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게 되면 이후에 더 큰 양보를 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본토 침공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고 계속 해서 상대국을 압박해왔다. 쿠바나 북한 역시 동일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국내적으로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명분으로 이용해왔다.

저자는 ‘베두인 전설’ 사고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러한 문제 접근 방식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킨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문제해결의 중요한 요점으로 보았다. 특히 미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 라울 카스트로간의 대화, 그리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를 기존의 사고방식에 머무르지 않은 긍정적 신호로 보았다. 쿠바와 북한의 입장 변화는 각국의 국내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즉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높아지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국가의 경제적 부흥이라는 지상과제가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와 북한의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향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은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현실주의의 가정에 의문을 표하고, 각국의 지도자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의사결정자들도 한 명의 사람이기에 항상 합리적일수만은 없으며, 이러한 변수가 실제 외교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베두인 전설 사고방식 외에도 많은 사료와 학자들의 주장을 분석함으로써 여러 외교적 판단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살펴보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간중간 다른 종이 색으로 처리된 정책적 제안 항목은 책을 읽는 독자가 더욱 쉽게 책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문적으로 주요 국제관계학과 의사결정 이론들을 현실에 대입, 평가하고 미래 예측에 적용하는 글의 구성은 관련 전공자나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미 관계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책이지만 한계 역시 뚜렷하다. 먼저 왜 의사결정자들이 타국과의 외교에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강경한 대응을 일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아쉽다. 이 책을 읽다보면 의사결정자들은 단지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선택을 자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비춰진다. 그렇지만 각국의 엘리트들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없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숨겨놓은 핵시설의 존재가 드러났고, 해당 핵시설에 대해 북한이 폐기할 의지가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상대와의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쌓여있는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또는 방법 제시가 아무래도 충분하지 못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저자인 안병진 교수는 이 책에서 보수나 진보 모두를 논박하며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자의 성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지라 논쟁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배두인 전설 사고방식 극복을 강조하다보니 핵을 놓고 미국과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을 대담한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회담 결렬 이후의 맥락에서 볼 때 단편적인 판단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글의 내용에서도 쿠바나 북한에 비해 미국에 대한 분석위주로 쓰여져서인지 미국의 오판에

대한 지적이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이 책을 볼 때 현실과 이론의 괴리를 실감하게 된다. 이번 결렬은 이 책에서 지적하는 편견과 불신이 왜 이렇게 뿌리깊은지 그 이유를 다시한번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북핵문제가 피흘림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배두인 전설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은 저자의 의견과는 별개로 적절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대립과 반목이 변동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비록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장마당 세대가 급부상하고 사회적 변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9년의 북한은 수 십년전의 모습과는 분명 다른 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이 책 말미에 강조하는 대로 미래는 열려있고 영원할 것만 같은 교착 상태는 언제고 급격한 변화를 맞을 수 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맥락과는 좀 다르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가운데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할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각각이 속한 자리에서 부르심을 좇아 그 변화에 기꺼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1.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론을 맞았습니다. 비록 회담은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번 회담 결렬이 북한 핵문제가 비확산이나 동결이 아닌 실질적인 핵 폐기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북핵 문제가 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남과 북이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회담 결렬 이후의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의 끈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된 각국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는 북한 핵문제가 큰 화두지만 핵 너머에 잊혀진 그 땅의 사람들, 영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전할 수 없는 현재의 악한 구조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합니다.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특히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그 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4.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을 숨기고 생활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고 고단한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영육 간에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사역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된 수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인권유린이 하루속히 중단되어 성도들이 자유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에 납치되거나 잡혀간 탈북민 출신 사역자 및 조선족 사역자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5.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준비되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한반도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3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시던 선교사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악화된 현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양육해줄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에서도 여성 및 일반 분야에서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가 상황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피땀흘려 헌신하며 수고해온 사역이 계속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와 주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 깨끗한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8. 오픈도어선교회에서 4월 1일부터 15주 과정으로 개최하는 북한 선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헌신자들에게 선교의 기회를 열어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북한선교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스테프들과 강사들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56호 우편번호07056

* TEL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제 7회 **오픈도어** 2019

북한 선교 학교

2019년 **4월 1일 - 7월 22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생명나래교회 본당 (사당역 6번출구 앞)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일반에서부터 국내 통일 선교 사역과 북한 선교 현장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이번 선교학교에 뜻이 있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북한 선교에 소명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1학기 - 북한에 대한 이해 (강사 변동 가능)

날짜	주 제	강 사
4월 1일	북한 사회와 문화 변화	강동완 (동아대 교수, 부산 하나센터장)
4월 8일	북한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 (아시아연합신대 북한선교대학원 교수)
4월 15일	북한 경제와 장마당 세대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
4월 22일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 실태	이성희 (미래소망스쿨 교감, 전 북한 국어교사)
4월 29일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양영식 (전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전 통일부 차관)

2학기 -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근 (강사 변동 가능)

날짜	주 제	강 사
5월 13일	탈북 난민과 인권, 그리고 북한 선교	지성호 (NAUH (나우) 대표)
5월 20일	교회에서 준비하는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 목회	하광민 (생명나래교회 담임)
5월 27일	북한 교회 핍박의 현장	박한나 목사
6월 3일	탈북 청소년, 새로운 통일의 세대	김두연 (한꿈학교 교장)
6월 10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선교	박현석 ((재) 나이스 피플 대표)

3학기 - 북한 선교의 실제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NGO를 통한 북한 선교 전략, 미디어를 통한 북한 선교 전략, 탈북 여성 사역, 북한선교현장의 실태 등 실제적인 북한 선교 사역을 주제로 관련 전문 사역자 강의

※ 선교학교 이후 국내 민통선 기도여행 및 현장 아웃리치 실시 예정

접 수

- 온라인(3월, 홈페이지 공지 참조) 및 현장 접수 (강의 1, 2주차)
- 등록비: 학기당 5만원 (사전 등록자 할인)

문 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Tel: 010-5107-8448, E-mail: info@opendoors.or.kr

홈페이지 참조 www.opendoors.or.kr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오픈도어선교회' 검색]